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

— 釜山·慶南과 北九州를 통하여 —

안 재 호
(동국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Ⅱ. 無文土器時代의 劃期
Ⅲ. 北九州地方과의 交流 樣相
1. 中期 前半의 突帶文土器
2. 中期 後半의 松菊里式土器
3. 後期의 粘土帶土器
1) 전반의 圓型粘土帶土器
2) 후반의 三角型粘土帶土器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한반도는 선사시대부터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문화의 육교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문화의 수용과 전파는 받아들이는 쪽의 사회·문화적 수준과 자연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여 수용되기 때문에 변형 절충되기 마련이므로 양 지역의 관계를 밝히기에 쉽지만은 않다.

無文土器時代는 無文土器와 磨製石器가 제작되고, 농경사회로 진입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에 있어서 최근의 발굴성과에 따르면, 이 시점은 기원전 10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강 이남에 있어서 無文土器時代의 개시는 팽이型土器 또는 東北地方文化의 영향으로 代立되었다는 說이 유력하지만, 최근 남부지방에서 突帶文土器의 발견으로 鴨綠江流域 또는 중국 遼東半島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문제는 無文土器文化의 성립과 관련된 북한을 포함한 중국측의 土器·石器·住居址·墓制 등을 망라한 제연구의 성과와 검토가 요망된다.

본고에서도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현상태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無文土器時代의 이 양 지역은 역시 농경문화와 더불어 靑銅器·鐵器文化를 매개로 한 교류가 빈번하였다. 한반도로부터의 이러한 영향은 西日本列島 전역에 광범위하며,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였지만, 그 初期의 원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北九州地方에 잘 남아있다. 한편, 일본의 弥生文化는 특히 土器만이 한반도에 많이 출토될 뿐이지만, 瓦質土器時代에는 銅鉾·倣製鏡 등의 倭系遺物도 보인다. 弥生系土器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은 역시 부산과 경상남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부산·경남과 일본열도의 북구주지역의 토기자료를 중심으로 교류의 흔적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無文土器時代의 劃期

無文土器時代의 분기 설정은 새로운 자료가 출토됨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어 왔다. 1970년대 전·후기의 2分期說[1]에서, 1980년대에는 松菊里遺蹟의 분석을 통하여 中期가 새로이 설정되면서 전·중·후기의 3分期說[2]로의 분기 설정이 우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1988년 李淸圭[3]는 남한지역의 유적 분포를 통하여 초기·전기·중기·후기·말기의 5分期로 구분하였으나, 松菊里類型을 지역에 따라서는 전기에서 중기까지 넓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孔列文系土器와 또는 圓形粘土帶土器와도 공반되는 최근의 발굴예로서도 松菊里文化의 초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

1) 林炳泰,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年代> ≪李弘稙博士 回甲紀念 韓國史論叢≫, 1969.
後藤直, <南朝鮮の「無文土器」> ≪考古學硏究≫19-3, 1973.
李白圭,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3, 1974.

2) 藤口健二,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硏究3≫ 弥生土器Ⅰ, 雄山閣, 1986.
河仁秀, ≪嶺南地方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9.
李健戊, <韓國無文土器の器種と編年> ≪한일교섭의 고고학≫ 야요이시대편, 六興出版, 1991.
宋滿榮,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3) 李淸圭,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文土器文化의 位置> ≪韓國 上古史學報≫1, 1988.

鄭漢德[4]은 기존의 無文土器時代 후기의 粘土帶土器 단계를 鐵器時代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松菊里類型을 靑銅器時代의 끝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靑銅器時代 전기는 可樂洞類型으로서, 팽이型土器系와 이것이 남한화한 可樂洞式土器를 표지로 삼고 있다. 중기는 欣岩里類型으로서 驛三洞式과 欣岩里式土器를, 후기는 松菊里類型으로서 필자의 先松菊里·松菊里類型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3시기 분류는 可樂洞式土器를 無文土器의 시작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편년과 차별된다.

필자는 無文土器時代 전·중·후기에 早期를 새롭게 설정하여 4時期로 편년하였다.[5] 이 편년안의 특징은 남한지역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에는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중기는 전기의 남부지역권내에서 다시 3개의 소지역권으로 분리하여 토기와 석기의 변천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그 배경은 새로운 논농사를 통한 농경사회에 진입하면서 氣候와 植生 등의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서 지역색이 발현한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던 것이다.[6]

早期는 突帶文土器를 표지로 삼는데, 有文土器時代 末期의 유물과 공반되는 단계이다. 慶南 晋州 漁隱1地區[7]의 圍石式爐址가 설치된 方型住居址群이 이에 속한다. 이 시기의 유물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세함은 알 수 없다.

前期는 天安-大田-大邱를 연결한 경계를 기준으로 그 북·남쪽의 中部地域과 南部地域으로 문화권이 분리된다. 그 중에서 남부지역은 突帶文土器와 欣岩里式土器가 공반되는 시기이다. 흔히

---

4) 정한덕,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에 대한 토론> ≪湖西考古學≫ 創刊號, 1999.
5) 安在晧,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2000.
6) 安在晧,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1992.
7) 李相吉, <晋州 大坪 漁隱1地區 發掘調査 槪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9.

欣岩里式土器는 전기의 늦은 단계 즉 전기 후반에 편년되지만, 남부지역에 있어서 전기의 이른 단계에 편년될 만한 명확한 유적은 없다.

<그림 1> 二重口緣土器 <1·2·5 : 2/15, 3·4 : 4/15>
1 : 진주 상촌리주거지, 2 : 同 대평리 1호주거지, 3 : 前同 옥방2지구 59호수혈
4 : 前同 50호수혈, 5 : 대전 둔산 2호주거지.

이 시기에 대체될 만한 遺構로서 晋州 上村里住居址[8]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 주거지는 3.34m×3.20m 규모의 평면 형태가 正方型住居址로서 壺 3점, 二重口緣深鉢 1점, 蛤刃石斧 1점이 출토되었다. 이 長頸壺(그림 6-1)는 마연토기로서, 頸部가 직립하면서 수직 또는 외경하며, 胴最大徑이 胴 중상위에 있어 동상반부가 球形을 띠고, 底部는 굽상으로 底面이 들려있다. 二重口緣의 深鉢(그림 1-1)은 최초의 출토예라고 할 수 있는데, 폭이 좁은 이중구연과 평탄한 口脣部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壺의 器形的 특징은 전기무문토기의 일반적인 형태[9]라고 할 수 있지만,

8) 沈奉謹, <晉州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文物硏究≫제3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9.
9) 安在晧,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碩晤尹容鎭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마연기법으로 整面된 점과 저면의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본 주거지에서 壺形土器의 출토 비율이 높은 점도 전기 무문토기 住居址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남한의 무문토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외래계로서 기존의 전기보다도 이른 시기에 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突帶文土器의 유입과 관련하여 鴨綠江流域 또는 遼東半島에서 그 유례를 구할 만하다.

二重口緣深鉢은 구연부의 점토대 폭이나 접합 기법상으로는 可樂里式土器(그림 1-5)보다는 남해안 有文土器 말기의 이중구연심발과 비견될 만하지만, 유문토기와 직접 관련짓기에는 현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고자와 같이 주거지의 형태가 방형인 점과 壺의 기형이 중국 동북지방의 古朝鮮式銅劍이 출토되는 유적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고 생각된다. 심발에 있어서 점토대를 붙인 無文樣의 이중구연이라는 측면에서는 大坪里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소위 '變形角形土器' 淺鉢[10](그림 1-2)과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 上村里 주거지의 시기를 빨리 본다면 전기전반의 이른 시기[11]에 해당할 것인데, 유문토기 말기의 이중구연 요소가 이 시기에도 존속한다고 보고 싶으며, 이 시기의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可樂里式土器와는 다른 계통이라고 추정하고자 한다.

---

10) 文化財硏究所, ≪晋陽 大坪里 遺蹟≫, 1994.
이 기종의 淺鉢은 형식학적 서열로 추정한다면, <그림 1>의 2→3→4가 되며, 4와 공반된 공렬문토기는 口緣端이 다소 뾰쪽하게 처리된 점으로 보아 중기 전반쯤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이와 同 계열의 이중구연은 大坪里 漁隱1地區 53호 주거지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다.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11) 大坪里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長頸壺 중 1점(그림 5-2의 內側 토기)은 형식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본 上村里주거지의 長頸壺보다는 늦은 型式이다.
정한덕교수에 따르면 이 上村里주거지를 남한지역내에서 최초의 무문토기시대로 보고, 돌대문토기는 이에 후행하는 것이라고 교시하셨다.

부산·경남지역에서 **驛三洞式土器**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居昌 山浦 1**호주거지[12]·**陜川 苧浦E**지구 2호주거지[13]·**鳳溪里 제1**돌무지[14]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유구에서는 **孔列文·口脣刻目文·口脣刻目孔列文土器**는 보이지만, **可樂里式土器系統**의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상기의 **遺構**만이 아니라 이 지역 **黃江流域**의 유적 전체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황강유역의 유적들이 전기부터 송국리유형의 중기에 걸쳐 형성된 점을 참조한다면, **驛三洞式土器**의 지역양상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즉, 거창·합천과 같은 황강유역의 경남 내륙지역에는 **孔列文系土器**만이 분포하는 것이라 추론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可樂里式土器**와 **欣岩里式土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는 없으나, **江原道 內陸·北漢江**과 **南漢江**의 **上流域**에서도 대체로 공렬문계토기만 출토되는 현상은 공렬문계토기가 대체로 내륙의 산지를 통하여 확산되었던 것[15]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게 한다. 이것은 아마 **火田**과 같은 생업의 특성상에서 연루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향후 이 황강유역에서도 조기의 **突帶文土器**가 출토될지는 알 수 없지만, **無文土器時代 前期=驛三洞式土器**라는 편년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써 부산·경남지역을 일체계로 편년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欣岩里式土器로 지표가 되는 전기 후반의 유적은 진주 **上村里 B地區**[16]·**漁隱2地區** 2호주거지[17]·사천 **本村里遺蹟**의 이른 시

12) 河仁秀, ≪嶺南地方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9.
13) 釜山大學校博物館, ≪陜川苧浦里E地區遺蹟≫, 1987.
14) 沈奉謹, ≪陜川鳳溪里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9.
15) 盧爀眞, <孔列土器 文化特色의 傳播網>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16)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17) 이주헌, <남강댐 수몰지구(어은) 1차 발굴조사>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기[18]·창원 加音丁洞 유물포함층[19] 등이 있다. 이 중에서 本村里의 예는 突帶文土器와 공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지역상을 보일지는 단정할 수 없어도, 다시 말해서, 突帶文土器는 전기후반까지 일부지역에서는 존속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中期는 전반대의 先松菊里類型과 후반대의 松菊里類型으로 나누어진다. 이 시기 특히 중기 전반대의 부산·경남지역은 석기·주거지·묘제 등에 있어서는 제일성을 보이지만, 토기의 전개 양상만은 兩大地域圈—동남내륙지역·동남지역—으로 분리된다. 현상황에서 상세히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대략 洛東江을 경계로 삼고 싶다.

無文土器時代 후기는 일반적으로 圓形粘土帶土器群의 전반과 三角形粘土帶土器群의 후반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瓦質土器의 출현 직전까지로 한정한다면, 필자의 舊稿[20]에서 三韓時代로 규정한 初期(단순 원형점토대토기군)를 전반으로, 前期 前半(원형점토대토기군+삼각형점토대토기군)을 중엽으로, 前期 後半(단순 삼각형점토대토기군)을 후반으로 대체하여 본고를 서술하고자 한다.

Ⅲ. 北九州地方과의 交流 樣相

無文土器時代의 한일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 弥生文化

18) 趙榮濟, <泗川 本村里 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19) 李柱憲·兪炳一·金良美, <昌原 城山貝塚 收拾調査報告> ≪昌原加音丁洞遺蹟≫, 昌原文化財硏究所, 1994.

20) 安在晧·洪潽植,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硏究>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1998.

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특히 일본 농경문화의 기원을 둘러싸고 고고학·인류학·농학 등의 다양한 연구에서 눈부신 성과를 맞고 있다.[21]

한편으로 한국측의 연구는 **無文土器時代** 자체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명되지 못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沈奉謹**[22]은 일본 **弥生文化**의 기원에 관한 **稻作·支石墓·石劍·丹塗磨研土器** 등을 일본 **繩文晩期**와 관련시켜 한반도 무문토기의 영향인 점을 밝혔다. 다만, 무문토기의 편년체계에서는 현재의 성과와는 다르지만 초기의 기초적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後期無文土器**와 **中期弥生土器**와의 병행관계에 대해서,[23] 단도마연토기[24]·송국리식주거지[25]를 통하여, 또는 한일간의 묘제 즉 **支石墓·石棺墓·石蓋土壙墓·甕棺墓**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26]에서 **松菊里文化**가 북구주지역의 **繩文晩期~弥生初期**의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최근의 성과 등이 있지만, 아직 종합적인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연구에서 일본 농경문화의 기원은 **松菊里遺蹟**을 중심으로 하는 중기문화와 관련되어 왔고, 이르면 **北九州地域**에서 지석묘와 공렬문토기의 출토와 관련시켜 **前期**까지도 확대되어 비교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남한지역의 **突帶文土器遺蹟**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필자의

---

21) 西谷正, <2 弥生文化期の日韓交涉研究小史> ≪한일교섭의 고고학≫ 야요이시대편, 六興出版, 1991.

22) 沈奉謹, <日本 弥生文化 形成過程 研究> ≪東亞論叢≫第16輯, 1980.
———, ≪韓國에서 본 日本弥生文化의 展開≫, 學研文化社, 1999.

23) 申敬澈, <熊川文化期 紀元前上限說 再考> ≪釜大史學≫第4輯, 釜山大學校史學會, 1980.

24) 河仁秀, <앞 글>.

25) 李健戊, <松菊里型住居 分類試論>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26) 鄭漢德·李在賢,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青銅器時代 文化 研究>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관점은 조기와 전기의 문화와 직접 관련시키기보다 연대적으로 가까운 중기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기 이후의 관련자료 특히 토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中期 前半의 突帶文土器

최근 진주 남강댐 수몰지구에 대한 대규모 발굴 조사를 통하여, 突帶文土器의 존재가 기존의 중부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突帶文土器는 무문토기의 深鉢形土器 口緣 直下에 단면 삼각형의 점토대를 붙이고, 刻目文을 시문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突帶文土器를 반출하는 주거지는 강변의 충적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최초의 농경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河岸의 冲積地帶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가 더욱 명확해지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에 한정한다면, 전기 후반까지 존속한다.

주지하듯이 突帶文土器는 일본의 縄文 晩期 夜臼式期 또는 弥生時代 초기의 지표로서 水稻作·한반도계의 磨製石器·環濠 등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突帶文土器가 無文土器時代 中期로 편년된 바[27]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남겨 둘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石劍과 石鏃의 제작이 단순화되는 반면 목공구인 有溝石斧와 기능이 倍加된 三角型石刀가 제작되는 시기

27) 李弘鍾, <日本 初期水田農耕期의 덧띠새김무늬토기> ≪史叢≫33輯, 1988.
——, <弥生成立期における韓半島土器の問題> ≪古代日本の稻作≫, 雄山閣, 1994.

부터 논농사가 시작되며, 이 때를 중기로 설정하였다.[28] 또한 이 시기부터 주거지의 취락내 집중화와 규격화의 현상이나, 少數人의 묘제로 변화된 지석묘를 통하여 有力個人 또는 有力集團이 돌출한다고 추정하였다. 環濠의 출현도 위의 논농사나 유력개인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틀림없다. 중기의 이러한 제 양상은 일본 돌대문토기 출현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突帶文土器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의 繩文晩期 黑川式期의 孔列土器에 뒤이어 출현한 突帶文土器(그림 2-下)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水田·環濠·磨製石器·壺形土器 등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데, 소위 大陸系磨製石器 중에서 短舟型石刀·尖根式의 一段莖式 석촉·C字狀溝를 가진 有溝石斧라든가, 일본의 突帶文土器 出現期의 특징 중 하나인 壺形土器에서 頸部가 內傾하는 '無文土器系'라는 壺(그림 2-2)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內傾하는 頸을 가진 典型丹塗磨硏土器 BⅡ類[29]와 계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유물은 한반도 無文土器時代 中期 전반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安在晧,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2000.
29) 河仁秀, ≪嶺南地方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그림 2> 상 : 일본 繩文晩期의 壺形土器 분류
하 : 일본 突帶文土器 Ⅰ期의 지역권
(藤尾愼一郎 1991 인용)

<그림 3> 金海·咸安의 中期 前半 遺蹟<유구 : 2/150, 토기 : 2/15, 석기 : 1/5>
1~3 : 김해 내동 2호지석묘, 3~8 : 同 3호지석묘, 9 : 함안도항리암각화유적 주거지, 10~13 : 同 지석묘 부석 주변출토품

<그림 4> 咸安의 中期 前半 遺蹟 <유구 : 2/150, 토기 : 2/15, 석기 : 1/5>
1~8 : 함안 도항리 암각화유적 바호지석묘, 9~12 : 함안 梧谷里유적 8호 석개토광묘, 13~15 : 同 12호석관묘, 16 : 同 2호주거지

일본 突帶文土器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을 필자의 東南內陸地域圈—호남의 보성강과 영남의 낙동강의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기문화권—으로 前稿[30]에서 거론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내경하는 頸을 가진 典型丹塗磨硏土器(그림 3-8, 그림 4-2·3·10)의 주분포지[31]이며, 鏃身이 圭形인 1段莖式石鏃(그림 4-4·5·15)과 下條信行[32]이 繩文晩期의 대륙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擦切기법의 短舟型石刀 등도 이 지역에서의 출토예가 보인다.

한편, 일본의 서구주지역에 突帶文土器가 유입되기 직전 黑川式期에는 공렬기법이 繩文土器에 시문된다.[33] 이 역시 한반도에서는 중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공렬문토기의 분포지는 남부지역에 있어서 역시 동남내륙지역밖에 없다. 이 지역은 前述하였듯이, 전기에서도 다시 지역권이 세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의 중기의 전개 양상에는 제일성을 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광역의 의미에서 이 동남내륙지역에서 중기 전반 시기의 突帶文土器의 출토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아래 金海 內洞지석묘 유적[34]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유구는 제2호 지석묘(그림 3-1)로서 하부구조가 石槨式이며, 典型丹塗磨硏土器 1점(그림 3-2)과 소위 突帶文土器 1점(그림 3-3)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들은 이 突帶文土器를 교란된 것으로서 매납품으로는 보지 않고 있지만, 단면 삼각형의

30) 安在晧,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2000.

31) 이 型式의 典型丹塗磨硏土器는 거창·합천·진주·함안·마산·창원·김해·대구 등지에만 출토되므로, 地域色이 엿보인다.

32) 下條信行, <日本稻作受容期の大陸系磨製石器の展開> ≪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 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Ⅱ, 1991.

33) 片岡宏二, <日本出土의 前·中期無文土器>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1998.

34) 林孝澤·河仁秀, <金海內洞第2號큰돌무덤> ≪年報≫第13輯,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林孝澤·郭東哲, <金海內洞第3號큰돌무덤>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2000.

점토대를 동체부에 붙인 특징을 통하여 **突帶文土器**로 명명하고 있다. 제3호 지석묘에서도 **突帶文土器**의 동체부편(그림 3-5)과 **典型丹塗磨硏土器** 1점(그림 3-8)이 **口脣刻目文土器**(그림 3-6·7)와 출토되었다. 지석묘의 구조(그림 3-4)는 2호와 같으며, 기원전 4세기경(단도마연토기 분류의 중기 후반)의 것으로, 돌대문토기는 매납품이며, **弥生中期**의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자들은 이 **突帶文土器**가 일본과의 관계도 가능하지만, 한반도 동북지방과 요동반도에서 기원을 찾고자 한다.

필자는 **舊稿**에서 이 토기를 **典型丹塗磨硏土器**의 시간성으로 볼 때 일본 **繩文 晩期**의 **突帶文土器**의 영향하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 때 추정한 바[35]가 있다. 그러나, 제3호 지석묘에서는 **口脣刻目文土器**가 공반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경하는 경부를 가진 **典型丹塗磨硏土器**와 함께 이 토기의 존재로서 중기 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동남내륙지역에 존속한 중기 전반의 **突帶文土器**의 하나로서 인정할 만하고, 전기에 보였던 각목기법이 없는 것이라던가 동체부에 돌대가 형성된 것 등은 시기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口脣刻目文土器**이다. 필자는 동남내륙지역의 중기 전반의 표지적 무문토기로서 **孔列文土器**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시기 **口脣刻目文土器**는 서남지역의 일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남내륙지역의 중기에는 일찍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띠는 중기의 유적으로서 함안 **道項里**암각화유적[36]이 있다. 이 유적은 **松菊里類型**의 4柱式 주거지 1동(그림 3-9)을 파괴하고 설치된 **敷石式支石墓**에서 **石棺墓** 2기와 **石蓋土壙墓** 6기가 확인되었다. 부석에서는 **口脣刻**

35) 安在晧·洪潛植,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硏究>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1998.
36) 昌原文化財硏究所, ≪咸安岩刻畵古墳≫, 1996.

目文土器(그림 3-11)가, 墓 내부에서는 內洞지석묘와 동형식의 丹塗磨硏土器(그림 3-8, 그림 4-2·3)와 尖根式의 1단경식석촉(그림 4-4~8)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無文土器는 이곳에서 孔列文 또는 短斜線文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道項里암각화유적은 김해 內洞지석묘와 동시기의 양상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 두 유적을 통하여 중기 전반의 지역색을 더욱 세분하여, 동남내륙지역의 동·서부양식으로 논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內洞지석묘의 口脣刻目文土器와 그 공반유물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동남내륙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중기 전반은 孔列文土器 또는 口脣刻目文土器와 突帶文土器가 공반할 것이라고 상정된다. 石器에서 石鏃은 1段莖式Ⅳ類, 石劍은 1段柄式과 Ⅲb·Ⅲc類의 有莖式, C자상 溝를 가진 有溝石斧, 短舟型 또는 三角型의 石刀와 공반된다.[37] 그리고, 墓制는 소수의 지석묘와 다수의 석관묘·석곽묘·석개토광묘·직립 매납한 옹관묘 등과 후술할 송국리유형의 주거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요소는 일본 돌대문토기기의 특징이라는 것은 전기한 한일연구자들에 의하여 주지된 것이다.

片岡宏二의 연구[38]에 따르면, 일본에 있어서 突帶文土器 출현 이전의 공렬토기는 북부구주의 해안부와 동해에 沿한 山陰地方에서 최초로 출현한다(그림 5-下). 이 양지역의 공렬(1-a류)의 특징은 직경 3㎜이상이며, 토기의 내면에서 뚫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는 관통된 孔列이며, 후자는 반관통이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片岡宏二는 이러한 공렬기법을 전기무문토기와 관련시키고 있지만, 필자의 先松菊里類型段階—중기 전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37) 安在晧,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1992.
38) 片岡宏二, <앞의 글>.

<그림 5> 上 : 일본 출토 松菊里型土器·關聯土器(■) 및 松菊里型住居址(●)의 分布圖 (李健茂 1992 · 片岡宏二 1999 활용)
下 : 일본 출토 孔列土器의分布圖 (片岡宏二 1999 활용)

한반도 동남내륙지역에서 孔列文과 突帶文土器가 공반된 중기 전반의 문화가 일본의 동해안 연안지역에 전파되었다면, 왜 孔列文土器系統과 突帶文土器계통이 각각 시기를 달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상정된다. 첫째, 일본으로의 전파 주체가 남동내륙지역내에서도 土器樣式의 차이가 있는 각각 다른 집단이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한반도 연구로써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측의 선택적 수용에 따른 결과인가? 田中良之[39]는 黑川式期에 나타나는 孔列土器와 丹이 칠해지는 繩文土器系의 淺鉢 그리고 쌀의 존재 등은 무문토기문화와의 교류 및 무문토기인의 渡來에 기인한 변화로 인식하고, 이 때를 情報의 蓄積期·變化의 準備段階로서 평가하고 있다. 양상의 차이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異見는 있지만, 藤尾愼一郎의 연구[40]에서는 突帶文土器와 함께 壺形土器·水田이 먼저 출현하고 그 뒤를 이어 環濠聚落과 大陸系磨製石器가 각각 나타난다고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반도에서 본다면 중기 전반에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전개 양상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위의 繩文人 주체적 입장에 대하여 家根祥多는 渡來人에 의하여 弥生文化가 성립되었다는 견해[41]도 있다. 그는 서일본에 있어서 繩文에서 弥生으로의 移行은 「稻作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이라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조직이나 祭祀 등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포함한 종합적, 또는 전체적인 문화변혁이었던 것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는 突帶文土器 자체가

39) 田中良之, <5 繩文土器と弥生土器 1. 西日本> ≪弥生文化の研究≫3 第2版, 雄山閣, 1997.

40) 藤尾愼一郎, <水稻農耕と突帶文土器> ≪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 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Ⅱ, 1991.

41) 家根祥多, <朝鮮無文土器から弥生土器へ>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Ⅰ≫, 1997.

한반도계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遠賀川式土器의 기원을 우리나라 남부 특히 동남내륙지역의 중기 전반의 무문토기로 보고, 이 지역의 移住者가 지닌 무문토기문화에 의해 繩文文化가 淘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서서 상정한다면, 한반도로부터 상당수의 이주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새로운 농경문화를 西北九州地域에 점진적으로 移植해 가는 과정 즉, 脫繩文의 과정이 弥生時代 早期의 양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북구주에 농경문화를 전파했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한반도 동남내륙지역의 埋葬 인골을 통하여 그 葬法이 최근 晋州 南江댐 水沒地區에서 밝혀졌다. 사천 本村里 2호석관묘와 진주 大坪里 玉房7지구 17호석관묘에서 양팔을 가슴에 모은 자세의 伸展仰臥葬의 인골과 服喪拔齒의 풍습이 확인되었는데, 일본 弥生時代에서 확인되는 인골의 특징과 동일하여, 일본의 渡來人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42] 이 2기의 석관묘는 매납된 丹塗磨硏土器[43]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중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술한 일본 水稻作 農耕文化를 전파한 主體로서 동남내륙지역이 중시될 수 있고, 家根祥多의 弥生文化 渡來人 主導說의 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中期 後半의 松菊里式土器

부여 松菊里遺蹟[44]에서 출토된 松菊里式土器는 口緣이 외반하

42) 田中良之, <남강지역 출토인골에 대하여>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9.

43) 趙榮濟, <泗川 本村里 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44) 姜仁求 외, ≪松菊里 I ≫, 國立中央博物館, 1978.

고, 동체부는 中位에 最大徑을 이루는 長胴形인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松菊里式土器를 최초로 중기로서 설정한 藤口健二[45]는 여주 欣岩里遺蹟의 外反口緣土器(흔암리Ⅲ식)에서 松菊里式土器의 출현과정을 찾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필자는 舊稿에서 전기의 長頸壺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松菊里式土器로 보았다. 즉, 口頸部는 직립의 長頸→직립의 短頸→外反口緣으로, 동체부는 肩部가 강조된 球形胴에서 長胴으로의 방향성에 따라 형식조열하여 전기와 중기전반, 중기후반으로 편년하였다. 家根祥多[46]는 이러한 호형토기의 구연부 변화를 더욱 세분하여 계열화하였다.

<그림 6> 壺의 變化

1:진주 上村里주거지, 2:진주 大坪里 1호주거지, 3:양산 新坪 9호주거지,
4:대구 東川洞 5호주거지, 5:거창 大也里옹관묘.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松菊里式土器의 분포는 남부지역의 서남지역과 동남내륙지역의 서반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45) 藤口健二,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弥生土器Ⅰ, 雄山閣, 1986.
46) 家根祥多, <朝鮮無文土器から弥生土器へ>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Ⅰ≫, 1997.

대구 東川洞·西邊洞·上洞유적,[47] 경주 避幕유적,[48] 울산 檢丹里유적,[49] 양산 新坪유적[50] 등지의 동남지역에서도 광의의 松菊里式住居址[51]나 松菊里式土器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 社稷洞 지석묘에서 출토된 短斜線文壺의 경우도 중기 전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구연부의 형태는 이미 松菊里式土器化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도 松菊里式土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檢丹里式住居址의 기본적인 형태는 방형이면서 中央竪穴이 설치되고 그 바깥 양쪽에 2개의 柱穴이 배치된 竪穴式住居址이다. 이 형식의 주거지는 동남·동남내륙지역에 분포하는 지역적 특색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休岩里式住居址는 서남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동남내륙지역 서쪽 일부에 분포하며, 中央竪穴 내부에 2개의 柱穴이 설치되는 것이 기본형이다. 이 양 형식의 주거지는 전기의 방형주거지에서 발전한 것이며, 爐址가 탈락되고 그 대신에 작업공인 中央竪穴로 대체된 것으로서, 취락내에서의 주거지의 기능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52] 이 형식의 주거지군에서 野外爐址가 간혹 발견되는데, 이를 통하여 1동의 주거지 단위로 개별적 취사가 이루어지던 전기와는 달리 공동소비

47) 유병록, <대구 東川洞 마을유적 조사성과> ≪21세기 한국고고학의 방향≫ 제2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2000.

48) 張正男·金鍾吾,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9.

49)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遺蹟≫, 1996.

50) 安在晧,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1992.
全玉年 외, ≪梁山新坪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2000.

51) 필자는 1996年의 舊稿에서 松菊里式住居址를 평면형태가 長方形이면서 2基 이상의 爐址가 설치된 주거지를 松菊里式方型住居址로, 本稿에서 지적하는 노지가 없는 대신 橢圓形의 中央竪穴이 갖춰진 평면 圓形의 주거지를 松菊里式圓型住居址로 각각 명명하여 區分하였다. 본고에서의 廣義의 松菊里式住居址란 休岩里式·檢丹里式住居址와 상기의 松菊里式圓型住居址를 包含한 것이다.

52) 安在晧, <주9의 글>.

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며, 주거지는 工房的 기능이 강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爐址가 없는 이러한 주거지를 계절성 가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남강유역[53]의 발굴에서 대단위의 취락과 환호가 조사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爐址가 없는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농경활동의 시기에만 집단으로 거주한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주거지의 수효가 너무나 많고, 인접한 범위내에서 3기의 環濠가 조영된 것은 定住性이 강한 취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시기 중기 전반에 爐址가 없어진 것은 온난해진 기후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농경사회에 혈연적 가족관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작용한 결과인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에 있어서 松菊里式土器와 松菊里式住居址의 출현 시기는 북구주지방의 夜臼式 新段階에 해당한다(그림 5-上).[54] 中間硏志는 突帶文單純期에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문화를 「외래문화의 제1차 파급」이라 하고, 이 松菊里類型의 영향을 「외래문화의 제2차 파급」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의 松菊里型住居址와 松菊里遺蹟의 비교에서 연대적으로는 일본측이 앞선다고 한다.

---

53) 嶺南考古學會,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 1998.
李源鈞・李尙律・李昶燁, ≪山淸沙月里環濠遺蹟≫,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동아대학교박물관,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999.
林孝澤・趙顯福, ≪山淸沙月里遺蹟≫, 東義大學校博物館, 1999.

54) 中間硏志, <松菊里型住居> ≪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中,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同朋舍, 1987.
片岡宏二, <日本出土의 前・中期無文土器>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1998.

<그림 7> 松菊里類型의 住居址와 遺物 <주거지 : 1/150, 토기 : 2/15, 석기 : 1/5>
1 : 東川洞유적의 동천동식주거지, 2 : 동 오곡리식주거지, 3 : 일본 合田 3호주거지(古期), 4 : 동 門田 4호주거지(新期), 5~12 : 寬倉里 F지역 15호주거지와 출토유물

이에 대해서는 양국의 石器에 대한 세밀한 편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근 기존의 松菊里式住居址보다 이른 시기의 圓形住居址가 대구 東川洞유적에서 검출되었다. 소위 "大邱型"[55]이라는 이 圓形住居址(그림 7-1)는 중앙에 2개의 柱穴만 배치되고, 中央竪穴이 없는 것이다. 이 형태의 주거지 중 제5호주거지에서 출토된 壺形土器(그림 6-4)가 주목된다. 이 壺의 동체부는 松菊里式土器와 같이 長胴하지만, 頸은 직립하는 長頸이면서 口緣端이 평탄한 면으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壺는 필자의 先松菊里類型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서, 檢丹里式 또는 休岩里式住居址와 동시기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圓形住居址로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東川洞유적에서는 이러한 東川洞式住居址 이외에도 中央竪穴의 바깥에 2개의 柱穴이 배치된 원형의 주거지—(그림 7-2)梧谷里式住居址—도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中央竪穴은 타원형보다는 원형에 가까운 것이 많고, 柱穴보다도 그 규모가 작은 것도 있다. 주거지의 세부 유물공반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주거지의 형식별 연대는 미상이지만, 石棺墓에서 출토된 丹塗磨硏土器와 平根式의 1段莖式石鏃 등의 유물로 짐작한다면, 이른 시기의 방형주거지를 제외한 원형의 주거지는 중기 전반에 편년시켜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

55) 嶺南埋藏文化財硏究院, ≪大邱 東川洞 마을遺蹟 發掘調査≫현장설명회자료 16, 1998.
유병록, <앞의 글>.
씨는 大邱지역의 조사에서 미보고되었으나,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지(Ⅰ-2·Ⅱ-2형)가 다수 발견된다하여 大邱型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향후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동 형식의 주거지가 발견될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최초 발견된 유적명을 따와서 "東川洞式住居址"로 명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圓型住居址에 中央竪穴이 있으며 그 外側에 2柱式의 柱穴이 배치된 형태(유병록 분류 Ⅰ-1·Ⅱ-1형)는 최초 보고된 咸安 梧谷里遺蹟(박동백·김형곤 외, ≪함안 오곡리유적≫,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5.)의 명칭을 빌어 본고에서는 "梧谷里式住居址"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이외, 중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한 함안 오곡리유적은 **圓形의 梧谷里式住居址**(그림 4-16)를 파괴하고 그 위에 **石棺墓**(그림 4-13) 또는 **石蓋土壙墓**(그림 4-9)가 조영되어 있는데, 이들 墓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중기의 양상이며, 특히 **典型丹塗磨硏土器**(그림 4-10)로 구분한다면 **河仁秀**의 **BⅡ類**로서 중기전반[56]에 해당한다. **梧谷里式住居址**는 아니지만, **松菊里類型**의 원형주거지가 검출된 함안 **道項里岩刻畵遺蹟**의 주거지(그림 3-9)도 역시 이 시기에 속한다.

최근 서남지역의 **寬倉里遺蹟**[57]이 보고되었다. **休岩里式**과 협의의 **松菊里式住居址**가 밀집한 취락유적으로서 **松菊里式住居址**(그림 7-12)에서 **口脣刻目文土器**(그림 7-5·6)가 주체를 이루면서 **松菊里式土器·三角型石刀·平根式**과 **尖根式**의 **一段莖式石鏃**(그림 7-9·10) 등의 표지적인 유물이 공반 출토되었다. 이 원형의 주거지는 **松菊里遺蹟**의 것보다 유물의 형식면에서 앞선 것이 확실하며,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 **圓形粘土帶土器·組合牛角形把手** 또는 **半圜形把手·三角形石鏃** 등이 출토되는 늦은 시기에까지 존속하기도 하지만, 그 출현시기는 역시 중기 전반부터라고 편년될 수 있다.

<표 1> 松菊里類型의 住居址 分類

시기 / 주거지		중기 전반	중기 후반
동남지역	(말각)방형	검단리식	
	원형	동천동식·오곡리식	오곡리식
서남지역	(말각)방형	휴암리식	
	원형	송국리식	송국리식

56) 河仁秀, <주29의 글>.

57) 吳相卓·姜賢淑, ≪寬倉里遺蹟≫, 亞洲大學校博物館, 1999.
李弘鍾·姜元杓·孫晙鎬, ≪寬倉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1.

이상에서 최근의 성과를 종합하면 중기 전반의 주거형태는 장방형 또는 방형의 기본적인 것 외에 서남지역의 休岩里式·松菊里式과 동남지역의 檢丹里式·東川洞式·梧谷里式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松菊里型住居址 중 中間研志가 분류한 "古期松菊里型住居(그림 7-3)"의 中央竪穴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적 특징에 한한다면, 대구 東川洞遺蹟의 원형주거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지적할 수 있고, 중기 후반의 원형주거지에서 中央竪穴의 형태가 楕圓形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圓形의 中央竪穴을 중기 전반의 특징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일본 출토의 松菊里型土器[58]에서 口脣刻目文이나 短斜線文 또는 孔列文이 시문되지 않은 素文만이 보이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중기 후반의 영향이 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일본의 古期松菊里型住居를 전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 주거지를 전파한 집단이 중기 전반의 突帶文土器를 일본에 반입하였을지는 알 수 없다.

3. 後期의 粘土帶土器

無文土器時代 후기의 지표유물로서 粘土帶土器가 있다. 현재 이 粘土帶土器는 구연부의 점토대 단면 형태를 통하여 圓型과 三角型으로 분류된다. 구연부의 형태는 圓型粘土帶土器의 경우는 동체부에서 둥글게 구연부로 이행하지만, 三角型粘土帶土器는 구연 내측이 〈자상으로 꺾이는 것이 특징이다. 점토대를 붙이는 방법에서는 구연부를 외반시켜 점토대를 부드럽게 감싸서 물손질로써 정리한 후, 점토대의 외면 下端의 1~4개소를 손가락 또는 도구로써 器壁에 눌러 접합을 강화시키는 것이 圓型粘土帶土

58) 片岡宏二, <앞의 글>.

器이고, 이에 반하여 三角型粘土帶土器는 점토대의 上端을 손가락으로 눌려 가면서 器壁에 접합하고 있어서 점토대의 외면에 指頭壓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의 粘土帶土器로서 점토대의 단면이 楕圓型인 것, 얇은 板狀인 것 등이 있으나, 구연부 내측이 외반이냐 직립이냐는 측면이 넓은 의미에서 圓型과 三角型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圓型粘土帶土器를 전반대로, 三角型粘土帶土器를 후반대로 편년하며, 圓型粘土帶土器에서 三角型粘土帶土器로의 변화는 일계열이며, 최후의 형태는 점토대의 하단부가 기벽에 압착되어 거의 융기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의 토기가 일본의 북구주를 중심으로 서일본 전역에 넓게 확산하고 있고,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일본의 弥生土器가 분포하고 있다. 한일 각 유적의 유물공반상을 통하여 일본의 弥生時代 중기와 우리나라의 無文土器時代 후기의 병행관계에 대하여 표로써 작성한 바[59]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한일 양지역의 병행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無文土器時代 후기 전반은 弥生時代 전기말과, 無文土器時代 후기 중엽은 弥生時代 전기초두와, 無文土器時代 후기 후반은 弥生時代 중기 전반과 대체로 병행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문제점은 후기 전반과 중엽의 圓型粘土帶土器에 있어서 유물의 공반관계를 통한 가설에 불과할 뿐, 토기 자체의 형식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朴辰一의 연구[60]에 따르면, 湖西·湖南地域의 圓型粘土帶土器를 크기와 구연부 및 동체부의 형태로써 5개의 형식을 설정하여 구분하였지만, 대상자료가 극소량인 점에서 분류 자체의 한계

59) 安在晧·洪潽植, <앞의 글>.
60) 朴辰一, ≪圓形粘土帶土器文化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한반도의 남한지역에서도 錦江·漢江·洛東江流域圈으로 지역성을 보인다고 하므로 圓型粘土帶土器의 시기 문제는 여전히 미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圓型粘土帶土器만으로써는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三角型粘土帶土器가 출토하는 중엽과 후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 경남 泗川의 勒島遺蹟에 국한된 편년안[61]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표 2> 靑銅器·瓦質土器時代와 弥生時代의 竝行關係

嶺南의 編年			土 器	嶺南의 遺蹟	嶺南의 弥生土器	北九州의 編年		
無文土器時代	後期	前半	圓型粘土帶土器		金海式	末	前期	弥生時代
		中葉		金海貝塚 甕棺墓	城ノ越式	初頭	中期	
		後半	三角型粘土帶土器	萊城	須玖Ⅰ式	前半		
				勒島Ⅱ地區Ⅴ層				
				勒島ⅠA地區				
瓦質土器時代	前期	前半		茶戶里 1期	須玖Ⅱ式	後半		
		後半	古式瓦質土器	池內洞 甕棺	(高三猪式)	前半	後期	
				茶戶里 4期				
	後期	前半		下垈 1期	(下大隈式)	中頃		
		後半	新式瓦質土器	老圃洞Ⅰ期	西新式	後半		

61) 釜山大學校博物館, ≪勒島住居址≫, 1989.
安在晧·徐姈男, <勒島住居址遺物 追報> ≪伽倻通信≫19·20合輯, 1990.

1) 전반의 圓型粘土帶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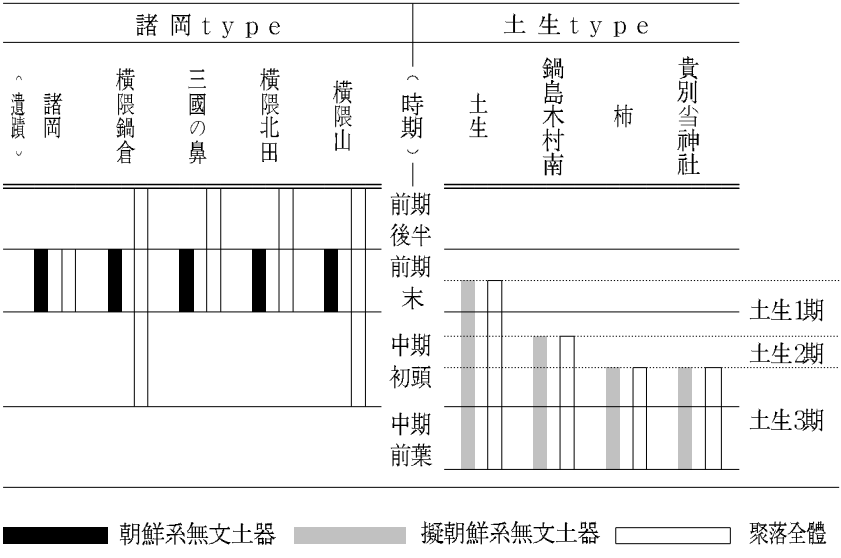
無文土器時代 후기 전반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 弥生土器의 출토예는 金海貝塚의 甕棺 3기[62]의 1예가 있을 뿐이다. 이 甕棺은 무문토기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弥生土器로서 弥生時代 전기 말 또는 중기 초두에 해당한다. 일본열도로부터 이 지역에 도착한 弥生人이 제작한 것이 틀림없다. 후술할 勒島遺蹟의 경우도 일상용의 토기는 弥生土器와 無文土器의 折衷式[63]으로서 나타나지만, 甕棺은 弥生土器에 충실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에 유입한 弥生人의 매장의식에는 列島의 관념에 철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北九州地域에서 圓型粘土帶土器가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片岡宏二의 연구[64]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이 시기의 한반도계 무문토기를 器形이나 제작수법상에서 무문토기에 충실한 朝鮮系無文土器와 弥生土器와의 절충식인 것을 擬朝鮮系無文土器라고 하여 나누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무문토기계토기가 출토되는 여러 유적을 분석하여 일본열도의 北九州地域에 정착한 無文土器人들의 취락을 <그림 8>과 같이 諸岡type과 土生type의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 씨의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諸岡type에서의 無文土器人의 居住地에 대한 제특징은, 시간 폭이 弥生時代 전기 말에 한정되며, 한반도 무문토기의 제작 기술·형태를 띤 朝鮮系無文土器만이 출토되고, 弥生人 居住群과 근접해 있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이 영위되면서 돌연히 단절하여 주변유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2) 樋本杜人, <金海會峴里貝塚發見の甕棺に就して> ≪考古學≫6-2, 1938.
63) 中園 聰, <折衷土器の製作者> ≪史淵≫第130輯, 九州大學文學部, 1993.
64) 片岡宏二, ≪弥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1999.



<그림 8> 일본 諸岡·土生type의 渡來人 聚落의 存續時期
(片岡宏二 1999에서 인용)

이에 대하여 土生type의 無文土器人 계통의 취락은 그 존속 시간 폭이 弥生時代 전기 말부터 중기 전반에 이르고, 서서히 弥生土器化하는 擬朝鮮系無文土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弥生聚落 속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주변의 취락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들의 취락도 弥生文化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각각을 대비하였다.

그리고, 위 두 유형의 주민의 성격에 대해서는, 諸岡type은 제1세대로서 청동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며, 전형적인 무문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면 여성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公的인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적·정치적인 권력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사정에 의한 流民的 성격이 강한 農耕民이다고 한다.

土生type의 주민은 일본으로 이주한 무문토기인 제2~5세대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이들이 弥生社會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동화되어 가는데, 擬朝鮮系無文土器를 통하여 土生Ⅰ~Ⅲ式期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Ⅰ式期는 弥生土器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중기 초두의 이른 시기로서, 土生遺蹟에 한정된다. 土生遺蹟의 주변 저습지를 開拓하여 취락을 형성하였다.

Ⅱ式期는 弥生土器와의 접촉에서 그 제작기술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로서, 중기 초두의 후반 시기에 해당하며, 집단이 확산하여 分村化의 경향이 나타난다. 鍋島本村南유적·柿유적·貴別当神社유적 등의 취락유적과 都留유적·三日月町의 北隣小城町自在유적의 墓址에서도 이 단계의 특징적인 토기가 출현한다. 따라서, 주위의 弥生聚落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서 주변의 墓制나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式期는 弥生土器의 제작기술에 동화하는 마지막 단계 바꾸어 말하자면 無文土器人系의 취락이 북부구주 弥生社會 속으로 매몰하여 가는 최후의 단계로서 중기 전엽에 상당한다. 擬朝鮮系無文土器는 여러 기종에서 나타나지만, 전통적인 기법이 대부분 소멸하며, 그것도 土生type의 무문토기인계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 속에만 남는다. 북부구주에서의 초기 청동기 생산은 土生type취락과 결부된 것이 확실하며, 細形銅劍·銅鉾·銅戈·銅鉸 등이 출토된다. 그 시기는 土生Ⅱ·Ⅲ式期에 해당하는데, 그 이전 시기에는 주로 농경민이거나 또는 청동기 주조 기술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속소재나 鑄型石材를 입수하는 수단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諸岡type취락의 朝鮮系無文土器는 한반도의 무문토기와 동일 기형·제작수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그 당사자들이 제작한 것이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제1세대의

無文土器人으로서 日本列島로의 渡航한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시기가 弥生時代 전기 말에 해당한다면, 無文土器時代 후기 전반의 늦은 시점이거나, 중엽에 가까운 시기로서 기원전 2세기 전반쯤이지만, 일본에서의 圓型粘土帶土器의 최초 출현은 전기 후반(板付Ⅱ式 新段階)이므로 기원전 3세기 후반[65]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의 남한지역은 韓國式銅劍文化 후기로서 장수 南陽里·부여 合松里·당진 素素里유적 등지에서 細形銅劍·銅戈·多紐精文鏡·銅鐸·琉璃製 管玉 등과 함께 鑄造鐵斧·鐵鑿 등의 철제품이 積石木棺墓에서 출토되기 시작한다.[66] 즉,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어서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상대적으로 청동기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환기에 한반도 남부의 정세가 어떠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無文土器時代 중기 이후로 빈번해졌던 북구주와 영남의 지속적인 교섭의 일부였다고도 생각된다.

諸岡type취락에서 佐賀平野를 거점으로 정착한 土生type취락으로의 시기적 관계로 본다면, 北九州地域에서의 무문토기인이 弥生社會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의 朝鮮系無文土器의 분포를 본다면, 동해연안에 도착한 초기의 이주민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의 정착지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하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農地의 개척과 청동기의 생산을 통하여 弥生社會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

65) 片岡宏二, <無文土器からみた弥生時代實年代論> ≪考古學ジャーナル≫325, 1990.
66) 李健茂, <扶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 朝鮮系無文土器 ○ 擬朝鮮系無文土器
△ 擬朝鮮系無文土器 가능성이 있는 토기

<그림 9> 北九州地域의 粘土帶土器 및 關聯土器 출토 유적 분포도
(1)와 金海 大成洞 燒成遺構 출토품(2~12) <토기 : 2/15>

2) 후반의 三角型粘土帶土器

金海貝塚의 甕棺墓를 조영하였던 弥生人은 한반도로 이주한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들도 북구주에 이주한 초기의 無文土器人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전통적 생활습속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후손 또는 새로이 이주한 세대의 시기로서 無文土器時代 중엽에 해당하는 부산 萊城遺蹟[67]의 주거지와 삼천포 勒島 제Ⅱ지구 下層[68]에서 弥生時代 중기초두의 토기가 출토된다. 이들 토기는 제작 수법의 제특징에서 弥生人이 제작한 것은 틀림없지만, 형태와 규격 등의 무문토기적인 요소도 절충[69]되어 있어서, 무문토기사회에 동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토기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瓦質土器時代 전기까지 지속되었지만, 김해 池內洞甕棺墓[70]의 부장품에서 보듯이 의례에 있어서는 여전히 弥生的 전통을 부분적이나마 계승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弥生人이 무문토기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무문토기의 제작 기법에서 새로운 木理調整 기법이 채용된 것[71]을 들 수 있다. 이 木理技法은 전기 무문토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채용되었지만, 木理道具의 樹種 선택·整面 部位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중기를 거쳐 후기 전반에는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 중엽부터 한반도 남부의 弥生式土器 분포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도래한 弥生人의 취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부산 萊城遺蹟에서는 방형의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는데, 弥生人의 거주지라고 보고 있으며,[72] 이 주거지 내에서 鍛冶作業이 행해

67) 宋桂鉉·河仁秀,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68) 安在晧·徐姈男, <勒島住居址遺物 追報> ≪伽倻通信≫19·20合輯, 1990.
69) 中園 聰, <折衷土器の製作者> ≪史淵≫第130輯, 九州大學文學部, 1993.
70) 沈奉謹, <金海池內洞甕棺墓> ≪韓國考古學報≫12, 1982.
71) 釜山大學校博物館, ≪勒島住居址≫, 1989.
安在晧·徐姈男, <勒島住居址遺物 追報> ≪伽倻通信≫19·20合輯, 1990.
72) 河仁秀, <2. 無文土器時代>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졌다고 한다.[73] 주거지에서 중기 전반의 須玖Ⅰ式도 공반되지만 중기초두의 城ノ越式土器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영남지역에서도 대구 八達洞 유적의 積石木棺墓[74]에서 보이듯이 철기생산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일본에 있어서 철기의 생산은 北九州地域에서 시작된다. 그 초현기는 중기 전반으로서 간단한 단조기술로 제작된 鐵鏃이나 소형의 鐵斧이지만, 중기 중엽부터 철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후반에는 대부분의 工具가 국산화로 제작된다.[75] 부산 萊城유적의 예로써 짐작한다면, 영남지역 특히 영남의 남해안 연안지역에 도래한 弥生人이 무문토기사회에서 철기생산에 직접 관계하거나 또는 그 기술을 습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이들에 의하여 또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에서도 弥生時代 중기 전반에는 철기생산이 가능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기의 弥生式土器는 金海貝塚의 甕棺墓(전기말～중기초두)→萊城遺蹟·勒島Ⅱ地區Ⅴ層[76](중기초두～전반)→勒島住居址(중기전반～후반)→김해 池內洞甕棺墓(중기 후반～후기 초)로 이어진다. 이들 유적들은 한반도 무문토기의 편년과 일본 弥生土器의 편년에서 정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의 弥生人이 도래하여 그들의 새로운 토기정보를 통하여 弥生式土器가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土生type취락의 경우는 한반도로부터의 새로운 정보가 단절된 상황에서 弥生文化化할 수 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본국의 토기

73) 孫明助, ≪韓半島 中·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技術과 發展過程의 硏究를 위한 試論≫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74) 박승규, <대구 팔달동遺蹟의 積石木棺墓> ≪전국역사학대회≫제41회 발표요지, 1998.
75) 川越哲志, <鐵器の生産> ≪弥生文化の硏究≫5 第2版, 道具と技術Ⅰ, 雄山閣, 1997.
76) 서영남, <勒島遺蹟 Ⅱ지구 Ⅴ층 출토토기> ≪考古硏究≫第5輯, 嶺南靑年考古硏究會, 1990.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萊城유적의 弥生系 渡來人은 다음 시기 즉 弥生時代 중기 전반 이후의 새로운 渡來人과 접촉할 수 있었고, 철기문화를 일본에 이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경우 즉, 한반도의 弥生系 渡來人이 본국의 토기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에 따라 弥生式土器를 제작한 흔적을 김해 大成洞燒成遺構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片岡宏二의 견해[77]를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1) 大成洞遺蹟 出土 土器의 系譜

大成洞遺蹟 출토 토기의 경우, 일본의 弥生土器에 유사한 一群의 토기가 보인다. 이 一群의 토기는 한반도 무문토기의 계보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서, 종래 주변의 유적에서 일본의 弥生土器 계통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도, 일본의 弥生土器에 그 계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弥生土器도 시기·지역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지만, 大成洞유적 출토 토기의 특징은, 북부구주의 弥生時代 중기 초두에서 전반에 걸친 시기의 토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에서 계보가 구해진다고 생각된다.

(2) 大成洞遺蹟 出土 土器와 弥生土器의 對比

大成洞유적 출토의 弥生土器의 대부분은, 弥生土器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무문토기의 제작 기술의 영향이 약간 보인다. 이하, 그 구체적인 예를 기술한다.

① 토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回轉臺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弥生土器는 회전대를 사용하며, 그 위에 두고 제작하지만, 이 시기의 무문토기는 손으로 만든다.

② 甕 구연부에 粘土帶 接合의 痕迹이나 손가락으로 눌린 흔적

77) 아래의 글은 片岡宏二씨가 필자에게 1999년에 「金海大成洞遺跡の弥生土器についての感想」이라는 제목의 서신으로 우송된 것이다. 씨의 동의를 구하여 全文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을 많이 남기고 있다. 弥生土器의 調整이, 천이나 가죽 등을 사용하고, 접합흔적이 지워지기까지 강하게 横方向으로 물손질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인정된다.

③ 弥生土器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口縁部의 形狀이 고르지 않아 대부분은 일본에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 형상을 띤다.

④ 調整의 대다수가, 무문토기에 보이는 磨研 혹은 섬세한 물손질로 조정되고 있다. 물론, 이 시기의 弥生土器에는, 이러한 조정도 있지만, 木理技法을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다.

⑤ 壺 구연부에서도 形狀의 不均一이 보이고, 특히 大形의 것은 점토를 쌓아 올리는 폭이 두터워, 이러한 것은 弥生土器에는 그다지 예를 찾을 수 없다.

(3) 大成洞遺蹟 出土 土器의 性格

상기와 같은 弥生土器의 관점에서 大成洞遺蹟 출토토기를 볼 경우, 명백하게 북부구주 중기토기의 계보에 놓여 있지만, 완전히 그 특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직접 가져들어왔거나, 弥生土器 제작자에 의하여 김해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가능성으로서는, 가까이에 弥生土器를 만드는 일본에서의 渡來集團이 있어서, 그것을 모방하거나, 혹은 일본에서의 渡來集團이 金海에 정착하여, 그 자손이 弥生土器의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도, 無文土器人이 일본의 弥生社會 속에서, 그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무문토기의 전통을 이어 받았던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전기말(중기초두)의 김해의 甕棺이, 매우 弥生土器에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김해지역에 일본으로부터 渡來人이 그 시기에 들어왔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집단의 자손이 무문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弥生土器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大成洞遺蹟의 弥生土器를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大成洞유적 출토 토기로써, 그 기본이 되었던 북부구주의 弥生土器型式을 구하는 것은, 大成洞유적 출토 토기가 이미 변용한 것이므로 상당히 어렵지만, 감히 추측한다면, 須玖1式段階에서는 소멸하는 如意形口縁이 변화한 듯한 것도 있고, 口唇에 점토를 덧붙이는 것이 짧고, 壺 구

연부에서 점토대를 바로 위에 쌓아 올리는 기법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써, 弥生時代 중기초두의『城の越式』에 그 原型이 구해지는 것은 아닐까. 단 그 시기가 일본의 중기초두에 병행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城の越式土器의 제작기술 후에 須玖1式土器의 제작기술이 두절되어 버린다면, 다음 시기에도 城の越式土器의 기술이 계승된다. 城の越式土器의 변화 속에서 이 大成洞유적 출토 토기를 살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片岡宏二의 관찰에 따르면, 이 김해 大成洞유적의 弥生系土器는 다른 유적의 弥生系土器보다 훨씬 무문토기적 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弥生土器的 요소의 原型은 중기초두의 城の越式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본 大成洞燒成遺構의 연대를 弥生時代 중기초두와 병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보고자[78]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물은 第1燒成遺構에서 검출되었는데, 無文土器・瓦質土器・弥生系土器가 혼재하며, 무문토기는 郡谷里式이 중심이면서도 圓型粘土帶土器가 잔존하였던 시기로 보고 있다. 瓦質土器와의 연대를 통하여 기원전 1세기 말~기원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 弥生系土器는 無文土器人이 제작한 것으로서 城ノ越식 이후의 잔형[79]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무문토기의 주체는 郡谷里式[80]이다는 점은 찬동한다. 긴 동체부를 가진 深鉢(그림 9-10)・壺와 구경이 넓은 淺鉢, 점토대의 下端部를 指頭로써 촘촘히 눌러 器壁에 밀착시킨 三角型粘土帶土

78) 李尙律・李昶燁・金一圭, ≪金海大成洞燒成遺蹟≫,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79) 安代皓・洪潛植의 앞글에서는 대성동소성유구에서 출토된 弥生系土器를 城ノ越式이 主体를 이루지만, 須玖Ⅰ・Ⅱ式土器로 또는 그 영향을 입은 것도 있다고 본 적이 있다. 하여튼 본고에서는 제작수법을 중시하므로 토기 하나 하나의 형식은 보고와 상기의 인용문에 따른다.

80) 安在晧, <3. 三角形粘土帶土器의 性格과 年代> ≪勒島住居址≫, 釜山大學校 博物館, 1989.

器(그림 9-11) 그리고 시루형토기(그림 9-12) 등은 勒島Ⅱ式에 後行하는 형태로서 茶戶里木棺墓[81]에서도 일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大成洞의 瓦質土器(그림 9-9)도 그 형식으로 본다면 茶戶里 제Ⅵ기로서, 三角型粘土帶土器의 최후단계에 해당한다.[82]

문제는 과연 기존의 無文土器時代 후기 전반의 표지유물인 圓型粘土帶土器가 무문토기 최종기까지 존속하느냐와 無文土器人이 왜 弥生系土器 그것도 이미 약 100년전에 그 제작전통이 사라진 생활용의 토기를 모방 제작하였을까 라는 점이다.

먼저 圓型粘土帶土器의 문제는 주거지 또는 생활유적 예를 들어 勒島住居址遺蹟·부산 朝島貝塚[83]·광주 新昌洞遺蹟[84]·해남 郡谷里貝塚[85] 등에서는 그 잔편과 三角型粘土帶土器가 공반되기는 하지만, 圓型粘土帶土器의 경우는 완형에 가까운 것은 없고, 구연부의 잔편만을 통하여 확인될 뿐이므로 반드시 공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들 유적과 관련된 분묘유적 예를 들어 新昌洞甕棺墓지[86]·勒島Ⅰc地區의 墳墓遺蹟·茶戶里墳墓遺蹟 등지에서는 이러한 공반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無文土器時代 후기 후반이후에는 圓型粘土帶土器가 소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大成洞유적의 弥生系土器의 제작주체에 대해서는 片岡宏二의 견해에 따르고 싶다. 토기의 제작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81) 李健茂 외,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Ⅳ> ≪考古學誌≫第1·3·5·7輯, 1989·1991·1993·1995.
82) 安在晧,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2000.
83)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84) 趙現鍾·張齊根, <光州 新昌洞遺蹟-第1次調査概報-> ≪考古學誌≫第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2.
85) 崔盛洛, ≪海南 郡谷里 貝塚Ⅰ~Ⅲ≫, 木浦大學博物館, 1987~1989.
86) 金元龍, ≪新昌里甕棺墓地≫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1, 1964.

따른다면, 기형·색조 등과 같은 외형적 속성이 그 일차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제작수법·정면방법·태토 등의 미시적 속성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적게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弥生土器의 형태적 특징을 지닌 大成洞遺蹟의 弥生系土器는 弥生文化의 규범 아래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在地의 영향 즉 無文土器的인 성형·정면기법이 첨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다. 따라서, 그 주체는 당연히 弥生系의 渡來人 또는 그 後孫이라고 생각된다.

大成洞燒成遺構에서 검출된 토기 중에서 圓型粘土帶土器를 외부로부터의 유입된 先代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弥生系土器와 三角型粘土帶土器·瓦質土器를 공반유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郡谷里式의 三角型粘土帶土器와 瓦質土器는 이미 공반 가능한 것임을 밝혔지만, 弥生系土器는 城ノ越式이라는 시간성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그 각각의 특징을 통하여 그 이후 型式土器의 存否도 명백히 해야되겠지만, 무문토기적인 변이가 상당히 가미된 이 弥生系土器를 판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燒成遺構내에서 출토된 모든 종류의 토기를 통하여 甕形土器의 구연부만을 계산할 때, 이 弥生系土器가 약40%로서 가장 많은 량이 출토된다는 점에서는 瓦質土器와의 공반유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大成洞燒成遺構에 대해서는 유구의 성격에 다소의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토기를 燒成한 유구로서, 瓦質土器와의 공반으로 시기를 결정한다면, 기원 1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弥生系土器는 片岡宏二의 지적과 같이 弥生 중기초두 또는 전반의 弥生土器를 모델로 하였다면, 그 原型은 대략 기원전 2세기 4/4분기쯤으로 볼 수 있다.[87] 그렇다고 한다면 弥生系土器와

87) 安在晧,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2000.

無文土器와는 약 150년 이상의 시간차를 보인다. 약 6~7세대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특정 시기의 弥生土器를 염두에 두고 모방제작을 되풀이해왔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다분히 새로운 弥生土器의 정보가 단절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접한 김해 池內洞甕棺墓[88]의 부장품인 袋狀口緣壺의 祭祀用 弥生土器가 중기 말~후기 초두[89]이므로 大成洞 燒成遺構의 시기에 일본열도로부터 새로운 弥生文化의 정보가 유입되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大成洞燒成遺構의 弥生系土器 중에는 최소한 弥生時代 중기 후반의 須玖Ⅱ式土器의 영향하에 제작된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須玖Ⅱ式土器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大成洞유적의 弥生系集團은 이 시기에 도래한 새로운 弥生人과의 정보교환이 없었고, 그들과는 문화적 동류의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이미 무문토기문화에 몰입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三角型粘土帶土器도 그 모두가 공반이 아니고, 최소한 2개의 군집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즉, 郡谷里式土器와 勒島式土器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大成洞燒成遺構에서 출토된 三角型粘土帶土器는 총 9점의 구연부가 보고되었다. 명백히 郡谷里式土器로 인정할 만한 것은 2점으로서 口徑이 胴最大徑보다 넓고, 점토대를 접합한 指頭壓痕이 촘촘히 남아있으며, 동체부가 긴 것이다. 이 외의 것 중에서 口徑은 胴最大徑과 비슷하고, 점토대접합기법이 점토대의 下方을 누른 Ⅰc式[90]이면서 口緣端이 뾰쪽하지 않고 약간의 面을 이루듯이 둥글게 처리된 것 4점이 있다. 그리고, 양자는 모두

88) 沈奉謹, <金海池內洞甕棺墓> ≪韓國考古學報≫12, 1982.
89) 片岡宏二, ≪弥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1999.
90) 徐姈男, <1. 勒島式土器의 設定> ≪勒島住居址≫,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이하의 점토대분류는 이에 따름.

木理調整技法이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전자는 瓦質土器와의 공반으로서 문제는 없지만, 후자가 勒島式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약간의 고찰이 필요하다. 勒島式土器는 第Ⅱ地區Ⅴ層期→勒島Ⅰ期→勒島Ⅱ期(勒島Ⅱ式→勒島Ⅲ式)로 발전한다.[91] 第Ⅱ地區Ⅴ層期의 三角型粘土帶土器는 점토대접합기법Ⅰb式에 구연단이 뾰쪽하며, 木理조정기법이 채용되지 않는다. 勒島Ⅰ期는 제2호주거지로 대표되는데 여기의 출토품을 통한다면, 점토대접합기법Ⅰc式이 주체이며, 구연단에는 대부분 둥근면을 가지고, 木理조정기법은 일부 채용된다. 勒島Ⅱ期는 제8호주거지로 대표되며, 대부분 점토접합기법은Ⅰb式이고 구연단이 뾰쪽하게 처리되고, 木理조정기법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변화에서 앞의 大成洞燒成遺構 4점의 三角型粘土帶土器 甕을 맞추어 보면, 기형적 특징은 勒島Ⅰ期에 속하며, 木理조정기법의 적용빈도로 본다면 第Ⅱ地區Ⅴ層期에 가깝다. 그러므로, 본 大成洞燒成遺構의 勒島式群을 勒島Ⅰ期와 第Ⅱ地區Ⅴ層期의 사이 시기로 상정해두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6점의 圓型粘土帶土器도 이와 공반이 되어도 좋을 듯하고, 弥生 중기 초두와 전반의 토기를 모방했다는 弥生系土器의 존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大成洞의 弥生系土器는 크게 보아서 勒島 第Ⅱ地區Ⅴ層과 동시기이며, 부산 萊城住居址보다는 1세대 정도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大成洞燒成遺構의 주체는 郡谷里式土器와 瓦質土器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주목적은 瓦質土器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성된 생산유구이며, 해남 郡谷里遺蹟·茶戶里遺蹟·池內洞遺蹟 등의 郡谷里式土器에 木理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시기에는 瓦質土器

91) 安在晧·徐姈男, <勒島住居址遺物 追報> ≪伽倻通信≫19·20合輯, 1990.
徐姈男, <勒島遺蹟 Ⅱ지구 Ⅴ층 출토토기> ≪考古硏究≫第5輯, 嶺南靑年考古硏究會, 1990.

의 출현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弥生土器 제작기법의 영향은 급격히 쇠퇴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이전 시기 즉, 勒島Ⅰ期의 직전단계에 이곳 大成洞遺蹟에 도래하여 정착한 弥生系人의 거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던 것이 그 후 즉 茶戶里Ⅵ期의 시점에 생산유구를 만들면서 여러 시기의 유물이 교란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여기에서 大成洞燒成遺構에서 출토된 各群을 大成洞Ⅰ期·Ⅱ期로 명명하고자 하며, 弥生系土器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하여 勒島의 弥生系土器와 비교하고자한다. 中園聰의 분석[92]과 前記의 片岡宏二의 분석을 대비한 것이 <표 3>이다.

<표 3> 勒島·大成洞출토 弥生系土器의 차이

屬性 / 遺蹟	成形	口緣의 지두압흔	口緣	主 調整
(中園聰) 勒島Ⅱ-Ⅴ層 勒島Ⅰ期	回轉臺 使用 可	물손질로 지움	水平 平面 正圓	木理調整
(片岡宏二) 大成洞Ⅰ期	回轉臺 使用 否	그대로 남김	不整形	磨硏 물손질

여기에서 勒島의 경우, 형태는 물론이고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弥生土器적 요소가 강한 반면 大成洞의 경우는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제작기법은 거의 무문토기화되었다. 이것은 두 집단간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후자는 무문토기사회에 이미 동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전자는 弥生社會의 문화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의 시간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勒島의 경우는 渡來人 제1세대라고 한다면,

92) 中園 聰, <折衷土器の製作者> ≪史淵≫第130輯, 九州大學文學部, 1993.

大成洞의 경우는 제1세대의 후손으로서 제2세대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勒島의 제Ⅱ期의 弥生系土器도 勒島Ⅰ期의 上記한 내용과 같은 점은 또 새로운 집단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즉, 勒島遺蹟은 끊임없이 일본의 北九州地域으로부터 渡來人이 출입하는 반면, 大成洞遺蹟은 그러한 교류로 인한 영향력이 적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勒島遺蹟이 그 당시 韓日交流의 窓口와 같은 성격이었다면, 大成洞의 경우는 無文土器사회에 편입된 定着地로서의 면모가 강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無文土器社會의 지역적 차이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島嶼地域인 勒島보다는 內陸에 가까운 大成洞遺蹟의 그 당시 사회조직이 훨씬 堅固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후속 시기의 鳳凰臺 環濠聚落이라든가 大成洞墳墓群의 성립으로도 다른 주변지역보다는 일찍 階層化된 사회였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지 신분 질서가 강하지 못한 사회 속의 弥生人보다, 더욱 조직화된 무문토기사회에서의 弥生人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무문토기사회로의 동화가 빨랐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서 大成洞의 弥生系土器가 勒島보다는 보다 무문토기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써 無文土器時代 후기 후반의 弥生系土器의 제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취락의 조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朝鮮系無文土器와 같은 양상은 밝힐 수 없지만, 弥生系土器의 특징을 통하여 여기에도 일본의 諸岡type·土生type과 같은 2개의 집단을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大成洞Ⅰ期의 집단은, 그 先代 예를 들자면 金海貝塚의 甕棺墓 집단(제1세대)과 같이 김해지역에 도래한 이후의 후손으로서 제2세대 정도에 해당한다. 이들이 최초 도래한 시기에는 弥生文化

的 전통을 유지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 大成洞 I 期에서는 무문토기사회에 서서히 동화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勒島·萊城·池內洞 등의 渡來人은 각 시기마다 도래한 제1세대에 해당한다. 그들의 일부도 내륙쪽으로 정착하였을 수도 있지만, 한일교섭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주체였는지도 모르겠다.

Ⅳ. 맺 음 말

이상의 고찰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토기를 통한 교류를 살펴보았다. 中期의 양상은 대체로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향하는 일방적인 문화전파라고 한다면, 後期의 양상은 兩岸間의 인적교류가 활발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문화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류의 본질적 목적은 기술 또는 물적자원의 획득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중기에 있어서는 農耕文化의 傳播가 중심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水田·農工具 등의 農耕技術體系와 環濠·世帶共同體 등의 社會組織 體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後期에서는 靑銅器와 鐵器와 관련된 技術의 習得이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화의 요구는 일본열도측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측인 한반도에서의 일본열도에 대한 요구는 고고학적자료에 한한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굳이 추측한다면, 韓半島의 文化變動期마다 社會的 不安이 야기되고 그 避難處로서 일본열도로 향한 것은 아닐까. 특히 中期에 있어서 한반도의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弥生文化의 문을 연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토기 이외의 농경·청동기·석기·지석묘·제의·사

회조직 등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고고학의 성과와 관련 유물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 한계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도 주저하였던 바가 많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욕구에 대한 중국 대륙측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의 연구로써 상당히 구체화된 것도 있지만, 이후 필자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